보육인광장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2020. Autumn+Winter

Vol. 09



육아종합지원센터

Contents

2020. Autumn+Winter **Vol. 09**

발간사

03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아이들의 미래

보육 브리핑

04 교사와 영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육과정'

10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한 백신은 없나요?

14 보육뉴스

보육 이슈

16 당황하거나 망설이지 말자! 영유아 성 행동문제!

22 어린이집 급식관리, 한 번 더 체크해보자!

보육 플러스

24 알쏭달쏭 어린이집 평가, 궁금한 10가지

보육인광장 스페셜

26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 부모도움자료 '싹쓸어' 모았다

35 센터소식

육아종합지원센터 매거진 **[보육인광장]**

발 행 일 2020년 9월

공동발행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북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북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남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대표번호 : 1577-075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아이들의 미래

우현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계신 보육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우현경입니다. 잠시 잦아드는 듯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재확산되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힘든 순간들을 버텨온 보육 현장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를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달리 길었던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으로 자연의 위력을 어느 때보다 실감했던 올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어김없이 찾아 온 가을날 청아한 날씨처럼 우리 보육인의 일상도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0년 9월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의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침투, 인공지능과 기술융합으로 거론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복잡하게 변화하는 자연과 미래 사회의 환경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분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스스로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한 통합적인 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계획하여 제공하는 놀이를 간략화하고, '영유아가 어울려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유아 성 행동문제'에 대해 '어린이집 관리·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영유아의 성 행동이 또래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발달적·교육적으로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과 대응은 출발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영유아가 성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도하는 탐색적 행동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변화부터 시작하여 영유아의 일상적인 성 행동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돌발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아직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틈새를 채워서 전문적인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잘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대면 가정양육지원 사업' 역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교직원과 아이들이 이 위기의 상황을 무사히 넘기고 건강하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동반자로서 언제나 현장과 호흡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와 영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육과정'

9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출발!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을 표방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된 이후, 9월 1일 0-2세 보육과정을 포함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이 운영된다.
그러나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이라는데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것인지,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교사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사의 고민을 중심으로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속속히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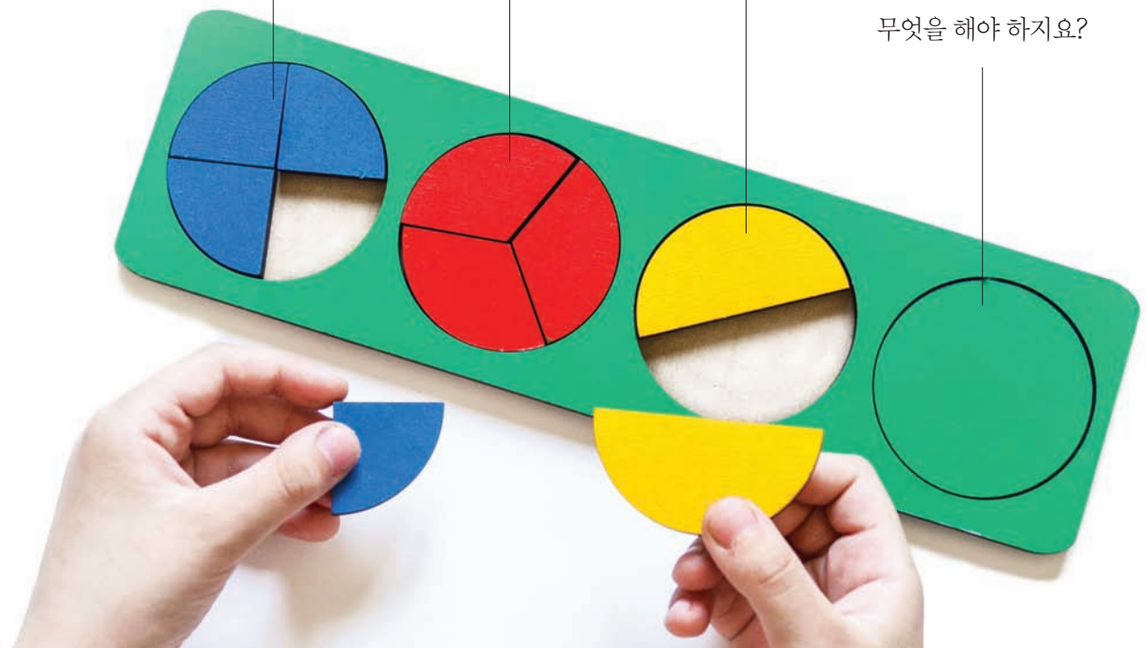
* 참고: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원래 표준보육과정은 놀이중심이 아니었나요?

영유아·놀이중심이면, 무조건 아이들이 놀이하고 싶은 대로 두면 되는 건가요?

놀이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하나요?

이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을 보급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개정된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시행부터 시작된 교사의 고민은 '0-2세 보육과정' 적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가 보급되었지만, 제3차 표준보육과정처럼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다보니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평가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예전처럼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보급하지 않은 것일까?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고, 제3차 표준보육과정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놀이중심을 추구한다. 이에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교사의 자율성이란, 각 반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영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놀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하며 배울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적 판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미리 계획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보다는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차 표준보육과정과 달리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도 이런 현장과 교사의 자율성 때문이다. 기존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내용상 교사주도의 활동을 많이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영유아의 놀이와 흥미에 따라 만들어가는 보육과정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었나?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 제3차 표준보육과정과 동일하게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기존의 보육과정 6개 영역과 연령 체계는 유지하되, 수준별·연령별 세부내용을 내용과 통합하여 간략화 하였으며, 이를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표는 제3차와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비교해 본 것이다. '0-2세 보육과정'은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에 비해 '기본생활'이 강조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특정한 활동 여부보다는 '경험하기', '시도하기' 등을 중점으로 구성되었다.



제3차 표준보육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

구분	제3차 표준보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연령	0-1세	2세	3-5세	0-1세	2세	3-5세
영역	6개		5개	6개		5개
내용범주	18개		20개	14개		15개
내용	48개	51개	59개	40개	43개	59개
세부내용	(4수준) 108개	(2수준) 101개	(연령별) 369개	수준별 세부내용을 내용과 통합		

제4차 표준보육과정 중 '0-2세 보육과정' 내용범주 비교

영역	내용범주	
	제3차 표준보육과정(0-2세)	제4차 표준보육과정(0-2세)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의사소통	듣기	듣기와 말하기
	말하기	
	읽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더불어 생활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탐구과정 즐기기
	수학적 탐구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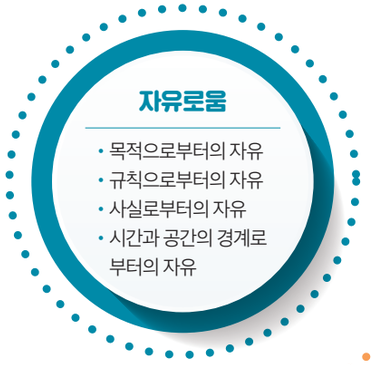
영유아에게 놀이란 어떤 의미일까?

'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교사와 영유아에게 질문했더니 공통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자유'와 '선택', '재미'라는 대답이었다. 특히 유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을 때 '놀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움을 공유할 때 '놀이'라고 생각하였다.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의 '놀이'란,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놀이하며 배우는 과정으로 영유아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배워가는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특히, 영아의 경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배우는 실제 내용을 존중하고 지원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영유아·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면 놀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에서는 놀이의 특성을 크게 '자유로움', '주도성', '즐거움'으로 표현하였다.



자유로움

- 목적으로부터의 자유
-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 사실로부터의 자유
-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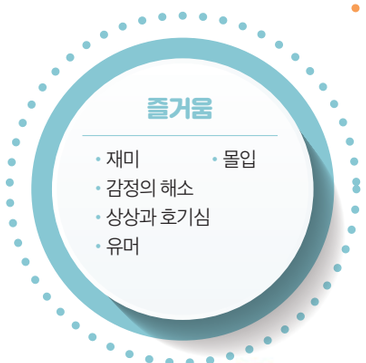
- 뚜렷한 목적과 계획된 활동 → 놀이의 흐름을 따라감
- 이미 만들어진 규칙 → 놀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질서
- 있는 그대로의 사실 → 현실을 넘어서 상상하고 자유롭게 표현
- 시간과 공간의 경계 → 시간(과거, 현재, 미래)과 공간(교실, 복도 등)의 변형과 창조



주도성

- 자발적 참여
- 능동성
- 내재적 동기

- 영유아의 자발성, 능동성, 내재적 동기, 즉흥적 전개와 같은 특성과 관련 있음
- 놀이주제, 놀이자료, 놀이상대 등이 즉흥적으로 생성, 소멸, 연결, 변형됨
-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창의성을 담고 있음



즐거움

- 재미
- 몰입
- 감정의 해소
- 상상과 호기심
- 유머

- 재미와 기쁨, 몰입, 감정의 해소, 유머 등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수반하는 즐거움이 있음
- 상상과 호기심을 통한 실험과 관찰, 문제해결의 성취감과 즐거움이 있음
- 긴장, 두려움, 갈등을 해소하고, 따뜻함, 배려, 아름다움같은 심미성을 경험함





* 출처: 보건복지부·교육부(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을 지향한다. 영유아의 놀이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가 모든 놀이를 미리 계획하여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에게서 발현되는 놀이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여지를 가지고 계획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가 자신이 계획한 주제나 활동과 다르게 이루어지더라도 영유아의 놀이를 존중하여 계획된 활동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의 교육적인 의도보다 놀이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미를 중심으로 계획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계획안을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사전계획을 최소화함으로써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 교사는 자율적인 계획 수립의 의미를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단순히 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란?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사는 놀이의 특성, 의미, 가치를 이해하여 영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배우는 경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놀이지원자로서 영유아의 놀이를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가 놀이에 몰입하고 확장하도록 돕는다.



영아의 경우에는...

- 영아는 언어표현이 미숙하므로 시선, 손짓,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에 더 민감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영아의 반복되는 놀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놀이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영아의 개인적 리듬을 고려해 지원해 주세요.
- 영아의 경우, 안전교육 시 대집단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놀이와 연계하거나 전이시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 영아는 또래 간 상호작용과 함께 교사와의 애착과 신뢰감 형성이 중요해요.
-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개별 일과 운영은 더욱 중요해요. 영아가 어린이집의 일상생활과 신체리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

교사는...

-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세요.
-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해주세요.
-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지원해주세요.
-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하세요.
-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세요.
-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지원해주세요.
-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세요.
-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지원해주세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활용하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고시 배경을 이해하고, 총론과 각론의 영역별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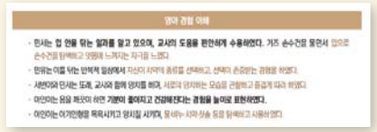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는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놀이 및 일상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2세를 담당하는 교사가 영역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3-5세 담당교사는 2020년 2~3월 보급된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들여다보기



「영아 경험의 실제」에서는 내용범주와 관련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영아 보육에서 일상생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일상생활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 사례 특성에 따라 반의 연령이나 해당 영아의 월령도 제시되었다.



「영아 경험 이해」에서는 '영아 경험의 실제' 사례에서 영아들이 경험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영아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해당 영역의 내용이면 진한 글자로, 타 영역의 내용이면 색깔 글자로 구분하였다.



「교사 지원」에서는 앞서 제시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 구성, 자료 제공, 일과 운영, 상호작용, 안전에서 교사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Tip

- 제4차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2019 개정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 등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4차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2019 개정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 → 표준넷(www.표준넷.kr)에서 구입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한 백신은 없나요?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마다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던 것처럼 어느 때부터인가 매일 ‘코로나19 현황’을 확인한다. 버스나 지하철은 마스크없이 이용할 수 없고,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외출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과 일상의 달라짐은 답답함과 무기력을 너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으로 ‘신체감염’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까지도 감염시키고 있다.

특히 어린 영유아나 그들을 보육·양육하는 교사와 부모의 스트레스는 매우 극심한 상태이다. 그나마 성인의 경우 자신의 정서와 스트레스 정도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영유아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적 안정·지원은 더 필요하다.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0).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영유아의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와 그 ‘반응’을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의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을 경험해 본 기회가 적어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영유아의 스트레스 반응이 부모 또는 교사의 시선에서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어 자칫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지속시키고 행동을 고착화시키는 동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효율적인 영유아 스트레스 대응을 위해 부모와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보자.



어른들이 불안해하면 우리들도 불안해져요.

영유아는 부모의 반응을 통해 재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염병 자체보다 부모의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영유아기는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애착대상의 반응을 살피며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아이들은 감염병보다 부모의 비난,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 행동, 정서적 방임에 더 영향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어른들이 걱정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면 혼낼 거예요.

영유아는 어른들이 걱정할까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압니다. 아이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말하지 않으면 감염병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평상시에도 영유아가 부모나 교사에게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서 짜증이 나요.

어릴수록 재난 스트레스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식습관의 변화(더 많이 먹거나 먹지 않음)
- 수면의 어려움, 야뇨증, 악몽
-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분리불안
- 지나친 의존행동, 퇴행행동
- 죽음에 대한 반복적 언급
- 주의집중 저하
- 성격의 극적인 변화(짜증 또는 공격성, 갈등 증가 또는 위축)

우리들이 놀이할 때 살펴봐주세요.

어린 아이들은 마음의 갈등이나 충격을 외상적 놀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충격으로 외상이 발생한 경우 신경질적이고 파괴적인 놀이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강박적이고 파괴적인 놀이가 지속되면 강제로 중단하거나 혼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옛날처럼 놀이할 수 없어서 속상해요!

어린 아이들은 감염병으로 인해 친숙하고 규칙적인 생활패턴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가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친한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상이 낯설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익숙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므로 가정에서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주세요.

재난상황이 포함된 정보를 볼 때, 함께 있어주세요.

실제 겪지 않은 사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유아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달라진 환경을 통해 감염병 관련된 변화를 감지합니다. 실제 겪은 일이 아니어도 미디어를 보고 감정이입하여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영유아는 감염병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거나,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자기중심적이므로 질병, 죽음, 격리 등 감염병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빠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영유아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가족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환상, 상상, 소망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로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가족의 죽음이 실제라고 믿지 않을 수 있으며, 기다리다가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분노와 슬픔, 우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감염병 재난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은 성인만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감염병 재난을 설명해주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적응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감염병 재난 상황을 잘 극복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1. 아이들과 감염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2. 아이들이 감염병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인정하고 충분히 표현하도록 해주세요.
3. 아이들이 감염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4.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언어로 감염병에 대해 설명하세요.
5. 구체적인 방법이나 예시를 들어 설명하세요.
6. 감염병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마세요.
7. 감염병에 대한 아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세요.
8. 부모-자녀 분리 시, 아이에게 부모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영유아와 함께하는 마음 도닥이기 활동

3.3.3 배꼽 호흡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또 하나, 둘, 셋을 세는 동안 숨을 참다가 다시 하나, 둘, 셋하면 숨을 '후우'하고 내 쉬기

힘주고 빼고

특정 신체부위를 말하고 해당되는 신체부위에 힘을 천천히 주다 멈춘 뒤 힘을 빼는 활동 (손-어깨-얼굴-몸통-다리-발)

지금, 여기, 무엇

아이에게 주변에서 보이는 물건을 5개만 찾아보라고 한다거나, 네모난 물건을 찾거나 같은 색깔을 찾아보는 등 현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집중하는 활동

마법 상자

<열고 닫을 수 있는 상자, 종이, 색연필>
열고 닫을 수 있는 상자를 보여주며 "이 상자는 걱정되는 마음을 먹어버리는 마법상자야. 안 좋은 마음을 여기에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함. 안 좋은 마음과 걱정을 그리거나 글로 써서 마법 상자에 버리는 활동

Q&A로 알아보는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Q. 아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주면 좋을까요?

A. 영유아가 현재 감염병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왜 궁금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정확한 정보(코로나19 등 정확한 명칭 사용)를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기도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Q. 아이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릴까봐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이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라는 말로 지금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감염병에 걸려도 모두 죽는 것이 아니며,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적 있지?"하고 아픈 사람도 잘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또한 아이가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세요('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등).

Q. 요새 아이들이 부쩍 병원, 죽음, 바이러스에 대한 놀이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A. 놀이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이런 주제의 놀이만 고집스럽게 반복한다면 단순히 흥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놀이를 해?" 등으로 놀이를 강제 중단시키거나 섣불리 개입하게 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진단해보기 위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니?", "바이러스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니?"라는 등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그림그리기 등으로 아이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감염병 재난으로 달라진 상황 때문에 교사의 스트레스도 늘어갑니다.

A. 감염의 위험은 교사들을 계속 긴장시키고, 본인이 노출되어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 이후에 방역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휴원연장으로 인해 보육 내용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려하지 말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들이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보세요. 또한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 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은 동료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는 어린이집 대응실천 A to Z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들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틈틈이 교재교구와 책상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을 지도하며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전국 어린이집의 현장 사례 이야기를 담아 카드뉴스를 업로드하였으니 타 기관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세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www.csia.or.kr)

보/육/뉴/스
EDUCARE NEWS

2020년은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시행 등 어느 때보다 보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해였다. 그러나 1월말부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책과 제도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보육정책과 보육사업에 있어서 코로나19 대응만 있었던 것은 아닐 터, 상반기 변화된 보육정책이나 하반기 달라지는 보육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9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보건복지부령 제 744호, 2020. 9. 1. 일부개정, 2020. 9. 1.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은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초등학교 1·2학년 포함)까지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하였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급간식 위생관리**를 기존보다 강화하였으며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2021년 시행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3-5세 누리과정에 발맞춰 놀이중심 0-2세 보육과정도 개정되어 0-5세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대응 방안 마련한다!

7월 3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성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주제로 「2020년 제2회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아동권리 포럼은 근래에 발생한 영유아의 성 관련 문제행동을 계기삼아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진단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실제적 대응 방안 및 관계부처 연계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토론을 위해 △장형윤 소장(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오채선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우현경 센터장(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미지 기자(동아일보) △김정아 기자(베이비뉴스) △김우중 과장(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이 참여하여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6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 방안에는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을 진행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연수 및 교육,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지역사회)와 교육청(유치원)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여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유행대비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V-2판의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였다.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사항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은 상황에 맞게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되었다.

V-2판 주요 포함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달리 적용
-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상위 단계 시행 가능

어린이집 등원·출입시 관리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귀가 조치 (단,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또는 등원 중단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도록 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업무(등원) 복귀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휴원기준

일시폐쇄
- (확진자 발생 시) 원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14일간
- (접촉자 발생 시) 접촉자 최초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휴원
-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원 실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2판(2020. 8. 31.) 주요 사항.

4 전국 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점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안산유치원 사례 등 급식위생관련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점검은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시설은 물론, 50인 미만의 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 먼저 50인 이상 어린이집 12,000여 개소는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존식 보관 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어린이집 23,000여 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보육부서)가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 하였으며,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이번 점검 이후에는 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복지부) T/F를 구성하여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5 학대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법령대로라면 아동학대범죄를 의심 또는 인지하게 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영유아보육법 제7조). 그러나 10월부터는 누구라도 아동학대범죄를 시도 및 시군구,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를 접수한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당황하거나 망설이지 말자! 영유아 성 행동문제!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안내

아이들의 문제행동과 갈등 상황에 초연하던 경력 교사라도 어느 순간 머뭇거리는 상황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들의 성 행동과 관련된 상황들이다. 교사들은 영유아 성 행동을 보게 되면 머뭇거림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내 이야기가 도리어 자극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성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이해를 돕고,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본 매뉴얼은 영유아의 '성 행동'에 대한 일상적 지도와 '성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 전문기관 지원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는 등 영유아 성 행동문제 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유아 성 행동,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영유아 성 행동은 출생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해가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이며 성장과 발달, 학습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성과 관련된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도하는 탐색적인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이들은 자신의 성 관련 행동 중 어느 부분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영유아 성 행동의 대부분은 발달상 나타나는 행동특성과 유사하게 개방적인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을 강압적인 태도로 제지하여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거나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은밀하고 반복적인 경향을 띄는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의 성 행동'에 대한 용어

매뉴얼에서는 영유아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접근방법을 기초로 영유아 성 관련 행동에 대해 성폭력, 성폭행, 학대, 가해 등의 용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용어	의미
영유아의 성 행동	영유아가 성장·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 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
피해 영유아	또래의 성 행동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
행위 영유아	성 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영유아 성 행동(문제) 수준

매뉴얼에서는 영유아 성 행동문제를 판단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수준(초록색)', '우려할 수준(노란색)', '위험한 수준(빨간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준별 판단 기준은 앞서 언급한대로 연령별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동을 기준으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지속성 및 반복성', '은밀한 행동',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한다.

수준별 행동 특성

구분	수준	판단기준	행동의 특성
성 행동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성 관련행동)	•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 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임 • 교사에 의해 중지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성 행동 문제	우려할 수준	+ 지속성, 반복성, 은밀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 교사가 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의 중단이 어려움 • 잠시 멈추었다가도 교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함 • 교사의 눈을 벗어나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남
	위험한 수준 (또래 간 성적 괴롭힘 포함)	+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 강요 및 폭력성 • 타인의 심신 피해 발생 여부	•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음 • 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임 • 또래에 대한 강요나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며 교사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로 또래를 데리고 가기도 함 • 또래 유아의 성기에 상처가 나거나 불안해하는 등 신체·정서상 피해가 발생함

일반적인 수준의 영유아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은 '성 행동'이라고 명명한다. 다만, 영유아의 성 행동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잘 살피고 '우려할 또는 위험한 수준'의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의 일반적인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반복된다면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 **우려할 수준**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우려할 수준에 속했던 영유아가 또래에게 강요나 폭력성, 심신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에 속했던 영유아가 **우려할 수준**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지속적인 성 행동을 관찰하지 못했으나 어느 한 순간 성 행동으로 폭력성과 심신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개입하여 행동을 중지시키고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에 해당하는 대응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수준별 관리 및 대응

매뉴얼에서는 영유아의 성 행동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기관의 관리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의 성 행동을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판단한 것처럼, 성 행동 수준에 따라 관리·대응 체계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에 따라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영유아가 성 행동을 보이는 경우, 수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 행동 수준별 관리 대응 체계

판단기준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	일상적인 수준 + 반복, 지속, 은밀	우려할 수준 + 강요, 폭력, 심신피해
행동수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어린이집 대응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지정 •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 •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 요청(필요시)	• 행동중지, 상황 파악 • 부모 면담(필요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요청(필요시)	• 즉시 중지, 분리조치, 모든 영유아 보호 • 상황 파악 • 부모(혹은 보호자)에 연락, 피해아동 치료연계 • 지자체 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관리 지원 요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대응	• 어린이집 교육 • 어린이집 자문·대응 지원(필요시) • 자문·지원과정에서 우려 또는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 시 상위 수준에 맞게 대응	• 어린이집 자문 • 사례별 대응 지원 • 자문·지원과정에서 위험 수준으로 판단 시 지자체 보고 및 사례회의 요청(위험한 수준에 준하여 대응)	• 지자체 보고 • 초기조사 지원 • 사례위원회 총괄 지원 • 중재안 및 치료·상담 등 사후관리 연계 방안 마련 지원
지자체 대응 (아동학대 전담 부서)			• 전문가 사례위원회 구성 • 초기조사 • 사례회의 개최(아동치료·상담, 중재, 교육 등 사후 관리안 마련) • 중재 • 사후관리 연계·실행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영유아 성 행동문제 시 대응 체계에 따른 조치

어린이집에서는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반 교사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영유아 대상 성 행동(문제) 지도·교육을 상시 관리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부모와 꾸준히 소통하여 필요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인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역할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내 각 반 교사에게 전달 교육 실시 •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지도·교육 상시 관리 • 영유아 대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및 영유아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 기획 •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요청 등 대응
원장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 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성교육 및 성 행동문제 대응 관련 교육 이수 지원 •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담당 교사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요청 및 지자체 보고 등 외부 대응 총괄 • CCTV, 정황 자료 등을 보존하여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초기조사 협조
담당교사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로부터 전달 교육 이수(온라인 교육 영상 활용) • 담당 아동에 대한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지도 및 관찰 •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시 행동중지, 상황파악 후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에 즉시 보고 (대응 매뉴얼, 대응 요령 숙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이들의 성 행동이 '일상적인 수준'인지 '우려할 수준'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A 영유아 성 행동 대부분은 발달상 나타나는 행동특성과 유사하게 개방적인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만약,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거나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인 성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일상적인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눈을 피해서 성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거나 다른 관심사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려할 수준'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일어난 성 행동이 아니더라도 강요나 폭력에 의해 피해유아가 발생했다면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행동의 발견 횟수를 파악하는 것만큼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유아 성 행동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필요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소꿉놀이영역에서 한 유아가 친구의 몸을 자꾸 만지려고 해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교사의 눈을 피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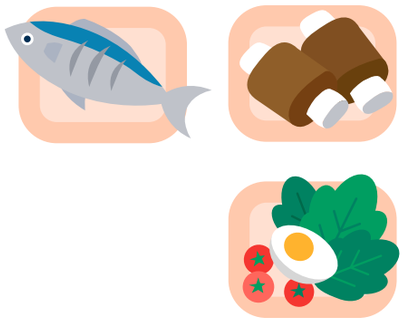
A 영유아가 교사의 눈을 피해 성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한다면 '우려할 수준'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몸을 만지려고 했다면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보았다면 행동을 중지시키고 유아들을 분리 조치한 후, 원장님과 어린이집 내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행위 유아, 피해유아, 성 행동 행위 내용, 일시, 빈도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성 행동 수준에 따라 부모면담, 지자체 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요청 등 '영유아 성 행동 수준별 관리 대응체계'에 따라 대응하도록 합니다.

Q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 시의 적절한 지도방법이 궁금합니다.

A 아래 제시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 대응방법은 실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한 성 행동 지도 방법은 참고를 하되, 교사가 지도를 하였음에도 영유아의 성 행동이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나타나 다른 영유아에게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및 행동	성 행동 지도방법
• 자신의 신체 탐색 중 우연히 하는 성기 자극 등의 성 행동	• 다양한 흥미 중 하나로 나타난 행동이므로, 흥미를 보일만한 놀이로 관심 전환
•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놀이를 찾지 못하는 지루한 상황에서 하는 성 행동	•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들 수 있도록 재워주고, 흥미 있는 놀이를 찾아 놀이상대가 되어줌
• 갑작스런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에 의해 나타난 성 행동	•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모면담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 흥미 있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
•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 시도하는 보여주기, 엿보기 등 성 행동	• 성 행동에 주목할수록 자꾸 하려고 하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 필요 • 유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과 애정을 표현
• 놀이 중 성 역할에 대한 모방행동으로서 표현하는 성 행동	• 역할에 대한 표현행동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역할표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줌
• 남녀의 성적 특징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또래 엿보기 등 일시적인 성 행동	•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표현이므로 일시적 행동으로 반응 •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통해 남녀 신체의 차이를 알려주는 등 관심을 해소시켜줌
• 성적 자극이 많은 환경으로 인해 성에 대해 강한 흥미와 관심을 표현하는 성 행동	• 성과 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남녀 성기의 차이점에 대해 성교육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알려주며 관심 수용 • 흥미를 가질만한 놀이를 제공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켜 줌

어린이집 급식관리, 한 번 더 체크해보자!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급식 위생문제로 영유아 건강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는 어떠할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자.

* 참고자료 : 202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2011). 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2009).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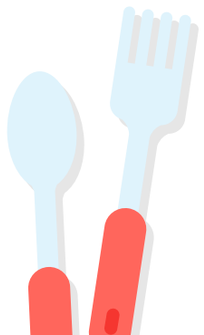
급식관리의 첫째는 위생관리

급식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는 조리실이 위생적이어야 하며, 음식을 다루는 조리원(조리사) 또한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식재료는 조리실 바닥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가급적 위생장갑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처럼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조리된 식품은 배식하기 직전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진행한다.

모든 식재료를 냉동고에 보관한다고?
NO! 식재료에 따른 보관법을 알자!

식재료마다 보관방법은 모두 다르다. 식품에 표시된 사항에 맞게, 냉동·냉장·실온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식재료를 미리 사다 놓고 보관하는 것보다는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식재료는 필요시 매일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 식재료별 보관 및 저장

- 식재료별 식품 표시사항에 맞게 지정된 장소에 보관
- 먼저 입고한 재료부터 사용하여 선입선출 준수
- 식재료 보관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 습관적으로 냉동실에 저장하는 품목들(멸치, 다시마, 고춧가루 등)은 꼭 저장방법을 확인하여 보관

2 냉장·냉동실 보관

- 냉장온도는 5℃ 이하, 냉동온도는 -18℃ 이하로 관리하고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
- 냉장고 전체 용량의 70% 이하로 물품 보관
- 뜨거운 것은 식힌 후 보관
- 음식물은 뚜껑 또는 투명비닐로 씌워 밀봉
- 냄새가 나는 식품(생선 등)은 냄새를 흡수시키는 식품(우유, 달걀 등)과 분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익히지 않은 날 음식과 분리하여 보관
- 달걀은 껍데기에 날짜가 찍힌 것으로 유통기한 내의 것으로 구입

3 보존식 보관방법

- 집단 급식소에 신고한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식사 메뉴의 보존식 보관
- 보존식 전용용기나 1회용 멸균 백(일반지퍼백 허용)을 음식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담아 보관
- 보존식은 배식 직전에 1인 분량(최소 100g 이상)을 독립 보관하며, 완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
- 영하 18℃ 이하 냉동고에서 144시간(6일) 동안 보관

1	2	3	4
위생장갑 착용 후 깨끗하게 소독한 용기와 기구를 사용하여 검체한다.	검취한 양이 100g 이상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용기에 담는다.	용기 뚜껑을 닫은 후 메뉴와 일시 등을 기록한 후 용기에 부착한다.	-18℃ 이하의 보존식 전용 냉장고에 144시간 보존한다.

-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

4 유통기한 준수

- 어린이집 내(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식재료(교직원용 식자재, 수입식품 포함)는 구입날짜, 유통기한 등 표기
-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식재료의 경우, 구입날짜 표기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반드시 폐기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급식분야 일별 점검표'

안내된 내용을 통해 급·간식 관련 사항들을 확인했다면 우리 어린이집의 위생·식자재·시설관리는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자.

어린이집 급식관리 일별 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위생관리 및 식재료 관리	-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금지)
	-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하고, 배식시에는 배식 전용기구, 마스크, 위생장갑을 사용하고 있다.
	-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있다.
	-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용기에 100g 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 세제, 소독제, 살충제에 라벨을 부착하여 분리보관하고 방충, 방서 등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 소독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 식재료의 입고 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작업 관리	-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하고 있다.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고 있다.
	- 농수산물 및 가공품(쇠고기 등 16종)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을 하고 있다.
시설 설비 관리	- 조리장 바닥과 배수로에 물고임 및 냄새 역류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 후드, 환풍기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 '**'가 표시된 점검사항은 집단급식소 미신고 대상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할 사항은 아님

* 출처 : 202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p.338.



알쏭달쏭
어린이집 평가, 궁금한 10가지

어린이집 평가, 하나하나 점검하면 할수록 알쏭달쏭 헷갈리는 지표가 있다.
평가지표를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어린이집에 적용하다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평가 준비 시 쉽게 놓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 참고: 한국보육진흥원(2020).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사례중심의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Q. (1-2-3) 오후 특별활동으로 인해 실내 놀이시간을 1시간 45분 정도 실시해도 되나요(특정 요일)?

A. 실내 놀이시간은 영유아가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고,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일 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이 12시 이후 오후에 진행하더라도 특별활동 등의 이유로 실내 놀이시간이 하루 2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1-2-4)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 진행 시, 대근육 활동으로만 1시간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날씨, 기상현상 등으로 바깥놀이의 실내 대체활동 진행 시에는 영유아가 다양한 대근육 활동 및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일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진행하는 놀이도 가능합니다.

Q. (1-3-3) 놀이자료의 다양하고 충분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량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 영유아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5-2) 연 2회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 작성 시, 표준보육과정 영역별로 골고루 기록해야 하나요?

A.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은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표준보육과정 영역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영역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일부 영유아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Q. (2-1-1) 영아반에는 반드시 신체활동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보육실 공간은 영아의 연령,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신체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며, 자신의 몸을 탐색하고 오르고 기고 흔들면서 신체발달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바로 꺼내어 놀이할 수 있는 신체활동자료를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2-2-1) 옥외놀이터 놀이기구로 자동차, 자전거 등 탈것도 포함되나요?

A. 옥외놀이터에는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1종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물놀이 도구,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적 놀이도구(자동차 등 탈것, 소꿉놀이)' 등은 놀이도구로 놀이기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탈 것 대신 놀이집, 평균대 등의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2-3-2) 연장반을 전담교사가 아닌 기본반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연장반 보육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연장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교사 배치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연장반 보육일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운영하더라도 기본반 보육일지가 아닌 별도의 연장반 보육일지를 작성합니다.

3영역 건강·안전

Q. (3-3-3) 영아들에게 대집단이 아닌 개별로 건강·영양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영유아 대상 건강·영양교육은 놀이, 활동,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며 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배식된 음식을 보며 영양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내용은 보육일지 등에 기록합니다.

4영역 교직원

Q. (4-2-1) 어린이집 내 비어있는 보육실을 교사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A. 교사실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교사실(교사용 휴식공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 (4-4-1) 교사 연간교육계획에 직무교육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실제 이수는 했습니다.

A. 보육교직원의 경력 등에 따른 직무교육도 반드시 연간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연간교육계획에 누락되어 있다면 '4-4-1-①' 지표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

부모도움자료 '싹쓸어' 모았다

"여름되면 괜찮겠지? 설마 코로나19가 일년 내내 가겠어?"
코로나19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다. 'POST 코로나', 'WITH 코로나' 등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고,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 세대와 그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뉴스에 나올 때도 우리는 '설마'라고 생각하며 반신반의했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고 안이했던 것도 사실이다. '언택트 시대'라는 신조어처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생소한 캐치프레이즈 또한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어느덧 가을이 훌쩍 다가왔음에도 아이들은 예전처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도 예전보다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콕'이라 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제는 부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이 평화롭기만 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 증가로 '헌법'을 개정하기까지 이르렀고(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의 결과라고만 볼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우리 아이에게서 볼 수 없었던 점들까지 속속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의 스트레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쳐있을 가정을 위해 부모교육자료와 놀이이해자료 등 슬기롭게 집콕생활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다.



Special 1

잘 놀아야 잘 자란다

'영유아중심·놀이중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5세에게 적용되었던 보육과정(누리과정)에 따라 0-2세 보육과정 또한 개정되면서 0-5세 어린이집 모든 연령의 영유아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어린이집의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이란 무엇인가요?

놀이중심 보육과정은 교사주도의 활동이 아닌 영유아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주도적·자발적으로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보육과정이 교사의 계획에 의해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았다면, 개정된 보육과정은 교사의 계획은 최소화하고 영유아 주도의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놀기만 하면, 무엇을 배우나요?

혹시, 아이들이 집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놀이만 하는 모습이 조금 답답한 적도 있으시죠?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생활의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교류합니다. 또한,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하지요. 동그라미만 그리던 아이의 그림 속에서 팔, 다리가 생기고, 탑 쌓기만 하던 블록으로 어느새 집을 만드는 놀이 속에서 아이들의 사고력, 창의성, 문제해결력이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집에서도 놀아주어야 하나요?

아이들의 하루는 사실 놀이로 꽉 차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스케줄에 맞추다보니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놀이도 시간을 내어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영유아의 놀이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에서 놀았으니, 집에서는 안 놀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하루 종일 놀았으면서도 함께 놀자며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아이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놀아야 아이들에게서 '잘 놀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가끔 아이와 놀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 얼굴 그려봐."라고 하면 "싫어.", "난 못 그리는데."라며 거부했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면 '가족 얼굴'을 그려 식탁 위에 올려놓기도 하죠. 진짜 못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리기 싫었던 거지요.



어떻게 놀아야 잘 놀았다고 할 수 있나요?

놀이의 중요성을 이미 실감하고 있으나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놀이 중 아이가 던지는 질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장난감은 뒤로 한 채 부모님께서 사주고 싶은 장난감들을 쥐어주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아이들의 놀이 비밀은 바로 **자율성**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 마음에 들어 원하는 대로 놀 수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아이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의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놀이에 몰입하다보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애써 고민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놀이에 흥미를 느끼고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놀이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영유아에게 놀이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영유아 놀이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EBS 놀이 관련 시리즈'나 'KBS 놀이의 발견' 등의 자료를 살펴보세요. 관련 자료는 'i-누리' 또는 EBS, KBS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i-누리(https://i-nuri.go.kr/) > 학부모코너 > 학부모지원자료

KBS 놀이의 발견



교육부 놀이, 아이 성장의 무한 공간



EBS 놀이의 기쁨

- 스스로 놀아야 큰다
- 밖에서 놀아야 큰다
- 바깥을 잃어버린 아이들



EBS 놀이의 힘

- 놀이는 본능이다
- 진짜 놀이 가짜 놀이
- 놀이는 경쟁력이다



EBS 놀이의 반란

- 놀이, 아이의 본능
- 아빠놀이, 엄마놀이
- 놀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Special 2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서비스'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낳게 되면 누구나 '부모'가 되지만 사실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사를 하려면 '실습'을 받아야 하고, 일반 회사도 '인턴'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실습이나 인턴시절 없이 부모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에 참여한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어제 화를 낸 것이 생각나서 등등 많은 이유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과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장난감·도서대여 및 놀이체험실 운영 등 다양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외에도 비대면 부모교육, 온라인 교육영상 제공, 온라인 양육상담, 찾아가는 장난감·도서대여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 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 및 부모 등 양육자)

언 제
언제나 상시 참여 가능!

어디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보세요.

무엇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비대면 포함),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 부모상담, 장난감·도서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시간제보육 등

어떻게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나는 공통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통 부모교육은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아이 마음 헤아리기', '내 마음 토닥이기'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부모교육 운영상황은 다를 수 있으며, 공통 부모교육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입문	**클로버 부모교육 (부모대상/부모-자녀 체험활동)** - 소중한 나 - 긍정의 가족 - 멋진 아이 - 아름다운 이웃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나의 강점을 알아보고 아이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대화법, 가족 간 신뢰와 이웃과 함께하며 배우는 리더십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부모교육** - 육아정보는 어디? 여기! 가득~	정부의 다양한 육아정책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지역 내 육아정보를 알아봅니다.
	심화	**가정 내 놀이환경 점검 부모교육** - 우리 집 놀이환경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 놀이환경을 점검해봅니다.
		부모 양육태도 점검 부모교육 -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부모의 놀이참여 태도를 점검해보고,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태도를 알아봅니다.
아이 마음 헤아리기	기본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 존중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영유아 발달 특징과 자녀권리존중 양육을 알아봅니다.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아동학대 유형과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대 사례를 살펴보며, 아동학대를 예방합니다.
	심화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교육** - 발견! 아이감정, 키움! 가족놀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여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놀이방법을 알아봅니다.
내 마음 토닥이기	심화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 아직은 낯선 이름, 엄마 - 엄마라는 무거운 짐 - 알아야 쉬워지는 육아 - 함께하는 육아의 어려움	현실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점검해보고,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집단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마음을 다독이며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http://share.educare.or.kr

'집에서도, 언제나, 누구나' _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부모교육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부모교육을 활용해 보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교육영상 8편, '아이 마음 헤아리기' 12종의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마음 헤아리기' 영상은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멋진 아이 골든벨	멋진 아이 유레카
클로버 부모교육	1화_ 소개 영상 2화_ 중립언어로 말하기 3화_ 나의 대화신호등 알아보기 4화_ Oh! No 대화, Oh! Yes 대화	1화_ 소개 영상 2화_ 생각을 여는 질문하기 3화_ 대화 CCTV 4화_ 위험한 칭찬, 위대한 칭찬 알아보기

아이 마음 헤아리기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1화_ 옆집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낯가림
	2화_ 내 친구 보들빠방	애착물
	3화_ 이제 같이 놀아도 돼?	또래간 다툼
	4화_ 아빠보다 아빠어플!	미디어 중독
	5화_ 밥 먹기 전쟁!	편식
	6화_ 딱 한 개만 보려고 했는데...	미디어 중독
	7화_ 마음이 기울어지면 터지는 풍선!	형제간 다툼
	8화_ 나는 불! 아빠는 얼음!	떼쓰기
	9화_ 진정한 정글의 왕!	거친 놀이를 즐기는 아이
	10화_ 장난감이 되어버린 전집	놀이의 중요성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11화_ 엄마 내가 싫어?	신체적 학대
	12화_ 혼자 있는 건, 정말 무서워!	방임





유튜브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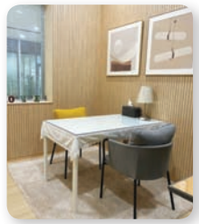


2020년 10월 이후,
새로운 온라인 교육영상이 오픈됩니다.
coming soon!

- 영유아 성 행동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양육정보와 상담'의 모든 것 _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양육서비스

"아이가 밤마다 울어요" 부모상담





우리 아이가 왜 우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밥을 잘 먹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 등 양육방법에 대한 사항과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전화 등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육아상담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상담

"새로운 놀잇감, 그림책이 없을까요?" 장난감·도서대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현재 228개의 장난감·도서대여실이 있습니다. 영유아 놀잇감 및 그림책 외에 부모를 위한 양육도서, 육아용품 등도 대여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많아지면서 양육자 여건에 따라 택배 및 찾아가는 대여서비스, 드라이브스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아직도 '키카(키즈카페)'가요? 우리는 '육아종'갑니다" 놀이(체험)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223개의 놀이(체험)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신체놀이, 탐색놀이, 소꿉놀이 등을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고 센터에 따라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센터마다 놀이체험실 이용기준이 다르므로,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Special 3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의 마음도 지켜요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극복 심리방역



1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가 소진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해야 아이들과 가족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스트레스 반응을 살펴보세요.

신체적 반응

소화불량, 구토, 피로, 두통, 수면장애, 호흡곤란, 변비, 근육통 등

행동적 반응

- **식습관 변화**(식사량 감소 또는 증가, 특정 음식 회피 등)
- **인터넷 의존 증가**
- **대인관계 변화**(은둔 및 고립, 대인적 의존성 및 통제 욕구 증가 등)
- **인지적 변화**(집중력 저하, 건망증 등)
- **기타**(쉽게 흥분하고 진정하기 어려움, 재난관련 정보회피 또는 집착 등)

사회 정서적 반응

영유아

- 마스크를 쓰는 등 달라진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 규칙적 생활의 변화로 인한 **짜증과 무기력**
- 집에서 지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한 **짜증과 답답함**
-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갈등 증가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
- 감염된 부모나 가족과의 격리로 인한 **불안, 슬픔, 죄책감**
- 오랜 격리 후 등원 시 **불안함, 낯설음**

부모

- 아이와 가족의 감염으로 인한 **죄책감**
- 본인과 아이의 감염병 전염가능성에 대한 **불안**
- 가사 및 양육 시간 증가에 대한 **짜증, 소진감, 절망감, 분노**
- 새롭게 경험하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당황과 무력감**
- 아이의 학습 지연에 대한 **불안**
- 휴업/근무일 축소와 수입 감소,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2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잠시라도 숨 돌리기

- 가족, 친구, 지인들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 SNS 등으로 소통하면 고립감과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해보세요. 긍정적인 표현이 짜증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주변 사람들이나 전화 상담원 등에게 털어놓으세요.

아이와 매일 새로운 놀이를 해야한다는 부담은 NO!

- 가사 노동과 돌봄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매번 새로운 놀잇감과 새로운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 영유아는 친숙한 반복 경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놀이를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 아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하루일과를 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되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지 마세요.
- 아이는 부모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덜 느끼고 잘 적응합니다.

아이의 학습 지연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NO!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집안에만 머무를수록 자칫 우리 아이가 교육이 부족해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책 한 권 더 읽히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쓰지 마세요. 불안이 높을수록 아이의 학습 효과는 떨어집니다.
- 아이들은 흥미와 동기만 충분히 유발된다면 나중에도 충분히 학습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3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거짓 정보로부터 아이들과 가족을 보호하여 불안을 줄이세요.

- 감염병에 대한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보가 유포되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방역 당국, 재난 방송, 신문에서 나오는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고, SNS나 풍문으로 전해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멀리하세요.
- 아이들을 거짓 정보나 충격적인 장면을 포함한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 = 내 아이를 알아가는 기회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 미처 몰랐던 내 아이의 특성을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디어나 온라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아이와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세요.
-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식단을 짜고 식사 준비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와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어요.

방역지침 연락망을 확인하고 의료 기관 정보를 알아두세요.

-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방역물품(예: 소독제, 마스크 등)을 준비하세요.
- 감염병 검사와 진단을 위한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등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 감염병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도 미리 알아두세요.
-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의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세요.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0).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귀한 보육·육아의 비전을 가지고 광주 시민과 함께 어린이의 바른 성장과 안심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오던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첨단지역으로 확장 이전하여 보다 넉넉한 공간에서 보육·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소 재 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시설규모 1,431.18㎡

센터 공간구성

- **1층:** 긴급아이돌봄센터,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 키움뜰 실내놀이터
- **2층:** 센터장실, 교육실, 사무실, 세미나실, 심리상담실, 치료실, 체험활동실, 수유실, 자료실, 휴게실

오시는길



- **주소 :**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110동 힐스테이트리버파크 오피스텔동 1~2층
- **전화**
  어린이집 지원 062-714-3636(내선1: 대체교사, 내선2: 평가제, 내선3: 보육교직원 교육, 내선4: 보육교직원 상담)
  가정양육 지원 062-714-3635(내선1: 장난감도서관, 내선2: 시간제보육. 내선3: 부모교육, 내선4: 기타상담)
- **팩스:** 062-714-3637
- **이메일:** kid7010@daum.net(대표메일)
  kid3503600@daum.net(평가제 컨설팅 신청 메일)
  kid7143636@daum.net(보육교사 심리·정서 상담메일)

교통안내

대중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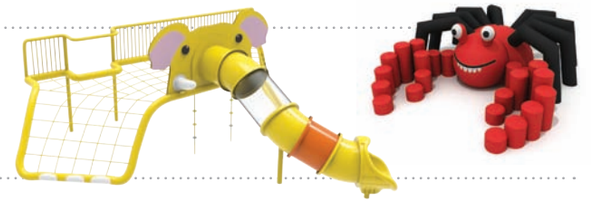
첨단롯데마트 : 금호46, 송정33, 첨단92, 첨단94, 첨단30, 임곡91
우편집중국 : 첨단22, 첨단23, 송정33, 첨단193, 첨단20, 수완03
교통공원 : 첨단23, 첨단30, 첨단193

자 가 용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쌍암동 695-1) 110동 힐스테이트리버파크오피스텔동 1~2층
교통공원방향 : 교통공원 - 롯데마트(좌회전) - 힐스테이트리버파크아파트(U턴) - 힐스테이트리버파크오피스텔 내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보훈병원방향 : 보훈병원 - 첨단생활체육공원 - 힐스테이트리버파크아파트 - 힐스테이트리버파크오피스텔 내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 키움뜰실내놀이터

구분	내용
이용대상	**개인** 광주 관내 24개월~만 5세 영유아 및 보호자 20팀 **단체** 광주 관내 회당 20명 기준 1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 24개월 미만 영아의 이용을 원하시면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용장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실내놀이터
이용시간	구분 / 평일(화~금) / 토요일 1회(10:00~11:30) / 개인/단체 (단체이용 시 개인 이용제한) / 개인 2회(13:30~15:00) / 개인 / 개인 3회(15:30~17:00) / 개인 / 개인 ※ 휴관일: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료	**개인** 1인 1회 2,000원 **단체** 1인 1회 1,500원 ※ 인솔자 무료
예약방법	**단체** 사전예약 **개인**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단, 사전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 현장접수 가능) 이용방법 : 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예약신청 ▶ 방문 ▶ 현장결제 ▶ 체험실 이용 ※ 홈페이지 예약 매월 3주 월요일 14시부터 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 사전예약, 전화접수 (☎714-3635, 내선4번)
이용수칙	·체험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개인 양말 또는 덧신을 꼭 준비하세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와 동반 입장하세요. ·보호자는 체험실 이용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원활한 체험실 진행을 위해 시작 10분 이후부터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협조 바라며, 체험실 이용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놀이 후에는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는 체험실 이용 시 동반한 영유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보호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체험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법정 감염병에 걸린 영유아 및 보호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체험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보호자(이용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문의	☎714-3635, 내선4번



새로워진 긴급아이돌봄센터와 키움뜰실내놀이터를 소개합니다~

●●●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긴급아이돌봄센터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야간 긴급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대상** 6개월 ~ 만 5세 영·유아
- **이용시간 및 보육료**

이용시간	·월~금 (18:00 ~ 다음날 9:00) ·토요일(9:00 ~ 20:00)
이용 한도	·월 7건 또는 80시간
보육료	·시간당 2,000원 (※ 월 7건 또는 80시간 이상 이용 시 5,000원)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신청방법	·www.gjicare.or.kr(PC)홈페이지 가입 및 아동 등록 후, 긴급돌봄 예약(1일 전까지 가능) ·당일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방문작성),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급·간식, 개별물통 및 개별 침구 등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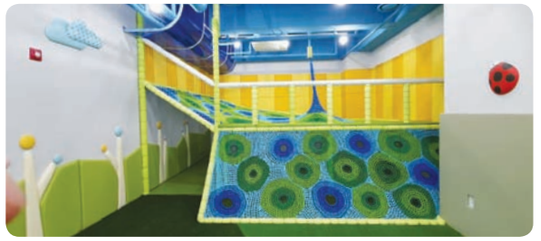
- **결제** 현금, 계좌이체

키움뜰실내놀이터









긴급아이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통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부모에게 건강한 양육문화조성 및 인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0년 9월~11월
신청대상 부모교육 참여자가 15인 이상인 어린이집(50개소)
※ 2019년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신청기간 2020년 9월(예정) ~ 선착순 마감
교육시간 1회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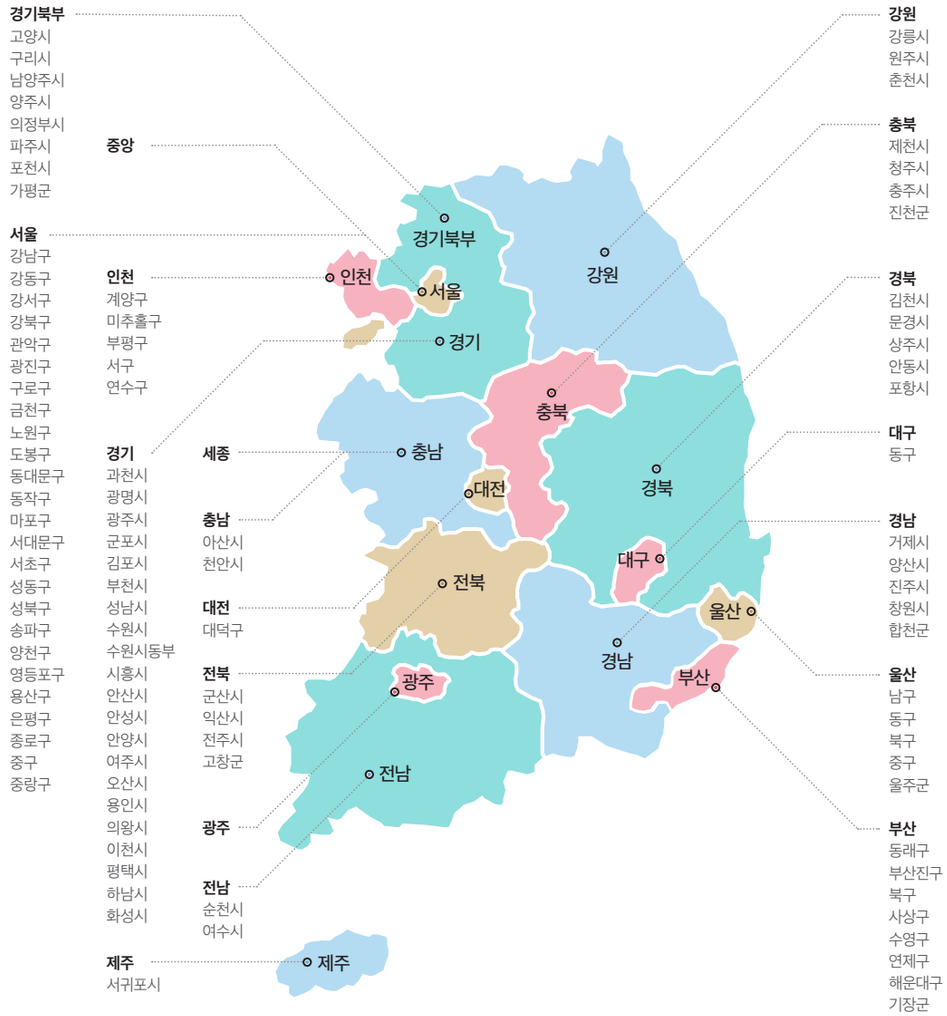
교 육 비 무료
어린이집 준비물 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 교재, 강사
신 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진행방법

01 어린이집 – e-러닝으로 선착순 신청
02 육아종합지원센터 – 신청자 중 부모교육 대상 어린이집 선정
03 육아종합지원센터 – 선정된 어린이집에 메일로 신청서 배부
04 어린이집 – 신청서 작성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신
05 어린이집과 센터 – 어린이집과 일정 조율 및 부모교육 홍보 및 진행

교육주제	교육특징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존중받는 아이, 함께크는 부모)	• 부모 스스로 자녀의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점검해 보고 자녀권리존중 양육의 의미를 살펴보며 부모됨에 생각해보는 데 초점
가정 내 놀이환경점검 부모교육 (우리집 놀이환경은?)	•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놀이환경지표를 활용하여 가정 내 자녀의 놀이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아동학대0% 가족행복100%)	• 영유아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학대에 대한 이해, 관련법 소개 및 가정 내 자주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방법 안내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교육 (발견! 아이강점, 키움! 가족놀이)	• 영유아 자녀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강점에 따른 놀이방법과 상호작용 기술을 안내하는 데 중점
부모 양육태도 점검 부모교육 (자녀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 부모가 자녀와 놀이 할 때 보이는 참여태도를 스스로 점검 해 보고 이를 통해 자녀와의 긍정적인 놀이행동 촉진하는 데 중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100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11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번호 : 1577-0756

육아종합지원센터



알찬 정보와 따뜻한 감성으로
보육인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